

# 韓國의近代化와 Communication.

安 海 均

## —目 次—

1. 序 言
2. 近代화와의 關係
3. 政府行政과의 關係
4. Media 利用度
5. Communication 의 構造
6. 結 言

## 1. 序 言

特定國家의 政治 및 行政現象을 科學的으로 分析研究하려며는 그 社會的 環境을 理解하고 그들과의 相關關係속에서 그 特殊性과 課題를 發見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國民個個人, 立法部 政府機關 및 各種 社會集團間의 相互作用과 그 影響關係가 上記한 特殊性을 規定하는 까닭이다.<sup>(1)</sup> 특히 그와 같은 相互作用을 直接的인 것과 間接的인 것으로 區分해 볼때 communication 이 그 基本的인 手段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이와 같은 communication 특히 mass com.에 대한 學問的 關心은 점차 高潮되어 가고 있는데 그 關心의 焦點은 主題와 關聯시켜 볼때 mass com.이 社會的 態度測定의 media로서 中央政府의 指導權의 強化 및 說得手段으로서 大衆相互間은 물론 各種 集團間의 意思傳達 및 說得機能으로서 取扱하여 諸般問題를 解決하려는데 集中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後進國家에 共通하는 諸條件下에서近代化를 指向하려는 韓國에 있어서는 더욱 學問的인 關心 뿐만 아니라 이 分野를 通한 實踐的 課題解決에 필요한 方法論의 摸索이 切實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意味에서 本論文은 問題提示에 있어서 韓國의近代化와 政府行政의 民主化 및 能率化와의 關係點을 우선 取扱하였고 韓國人の media 利用度 및 communication 的 構造를 分析하려고 試圖하였다. 따라서 本論文은 韓國에 있어서의 communication 的 特殊性을 體系化

(1) R.C. Snyder, "A Decision-making approach to the study of Political Phenomena," in R. Young(ed.), Approaches to the study of politics, 1958, p. 11. 및 行政과 社會的 環境에 關해서는 朴東緒, 比較行政의 方法論 行政論叢 行政大學院 1962, pp. 1~35. 그리고 Fred W. Riggs, The Ecology of Public Administration Bombay, 1961)

하기 위한 하나의序說로서 그리고 미비하나마 現存하는 基本資料의 整理提示라는 意義를 찾는는데에 그 根本動機를 갖는다고 본다.

## 2. 近代化와의關係

韓國은 現在 他後進國에 비해서 比較的 높은 政治意識<sup>(2)</sup>과 近代의 法體制 및 行政體制를 具備하고 있으면서도 政治 經濟 社會部門에 있어서 克服하기 힘든 強力한 諸抵抗要素에 面하고 있어서 그 副作用으로 極甚한 陳痛期에 놓여 있다. 이러한 抵抗要素의 代表의 것을 指摘하면 政治의 不安定性과 政治態度의 前近代性<sup>(2)</sup> 產業構造의 畸型性<sup>(3)</sup> 低率의 經濟成長度<sup>(4)</sup> 와 低位의 國民所得<sup>(5)</sup> 그리고 高位의 人口成長度를 들 수 있는데 이와 같은 諸要因의 葛藤은 主로 西歐의 近代化된 文化가 傳統의 前近代的 行動樣式<sup>(6)</sup>을 아직도 脫皮하지 못한 韓國 社會에 浸透함으로서 이러나는 새로운 dynamic 한 副作用傾向에 依하여 더욱 그 樣相을 深刻化 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7)</sup> 말하자면 이른바 「二重的社會構造」가 政治, 經濟 行政部門에 있어서의 近代化를 위한 發展을 阻害하고 있다. 韓國의 社會構造가 近代化되지 못한 까닭에 西歐의 諸制度의 採擇은 그 實效性을 걱기 어렵고 資本形成의 基盤이 되는 技術과 習慣 및 生活樣式이 아직 一般화의 段階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결국 韓國의 近代化가 促進되려면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政治 經濟 社會構造의 세 가지 部門에 在內하는 諸要因을 克服하는 것인데 Millikan과 Blackmer에 의하면 이 세 가지 部門이 共通의 要求하는 基本的 變化는 態度의 近代化라고 한다.<sup>(8)</sup> 個個人의 傳統의 價值觀과 行動樣式의 近代化가 促進되고 이에 따르는 社會의 地位와 役割關係가合理化되는 것을前提하지 않고서는 餘他의 部門에 있어서의 效果의 近代化를 期待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러한 見解는 비단 前記한 두 學者の 見解보다도 E. Fromm에 의해서 보다 適切히 說明

(1) 韓國의 歷代大統領選舉에 있어서 平均投票率은 90%, 歷代國會議員選舉의 投票率은 86%이다.(東亞日報 1963. 10. 15. p. 1)

그리고 第五代 大統領選舉에서는 與黨立候補者인 朴正熙氏가 約 470萬票를 얻고 野黨立候補者인 尹潽善氏가 約 455萬票를 얻어 그 差異는 15萬票에 不過하다.(東亞日報 1963. 10. 17. p. 1)

(2) 尹天柱, 韓國政治體系, 高麗大學校出版部 1963. pp. 107~108.

(3) 1961年 國民總生產의 產業別構成比를 보면 第一次產業 40%, 第二次產業 21%, 第三次產業 39%이다. 先進諸國에는 第二次產業이 40~50%이다.(經濟白書 經濟企劃院 1963. p. 8).

(4) 韓國의 最近 經濟成長率은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4.0 0.3 8.7 7.0 5.2 2.1 3.5 2.3

(韓國統計年鑑 第十回, 經濟企劃院 1963. p. 75)

(5) 1959年度 韓國의 國民所得은 78弗로서 韓國統計年鑑(經濟企劃院 第10回) 481面에 나타난 40個國中 韓國보다 낮은 國民所得水準을 보이는 나라는 베마(48弗) 印度(65弗) 인도네시아(50弗) 파키스탄(53弗) 4개 國뿐이다.

(6) 李萬甲, 韓國農村의 社會構造(韓國研究圖書館, 1960) pp. 69~104 參照

(7) 新聞의 社會面에 나타나는記事는 대부분 이러한 副作用의 結果라고 생각된다.

(8) Max F. Millikan and Donald L.M. Blackmer ed., The Emerging Nations, 1961, 柳益衡譯, 思想界社, p. 30.

## 研究論文

되고 있다.<sup>(9)</sup> 그는 社會體制의 變革은 歷史的 轉換期에 처해서는 빠른 速度로 遂行되는데 比하여 社會構成員의 傳統的인 社會的 性格 social character의 變化는 그리 容易한 일이 아니어서 構成員의 社會的 性格이 變革된 社會體制에 適應하지 못하는 경우 個個人은 體制의 強化를 위한 cement 役割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破壞하는 dynamite 役割을 하는 結果를 招來하기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後進國의 近代化過程을 階段的으로 測定하는 指標를 提示함에 있어서 D. Lerner는 產業化程度, 經濟成長度, 都市化程度 以外에 教育程度, Media 利用度, 政治參與度라는 指標(index)를 補充하고 있는 것이다.<sup>(10)</sup> 그 理由로 人間의 社會的 行動을 規定하는 慮度(altitude)는 社會文化的in 條件에 의해서 形成變化, 維持되는데 具體的으로 가장 큰 影響力を 미치는 것은 教育과 mass com. 이라고 보는 까닭에 그와 같은 index가 提示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立場에서 볼 때 後進國家의 政治·經濟의 發展이 產業構造의 近代的 改革과 그 生產性의 上昇的인 速度에 의하여 決定된다고 보는 傾向이一般的인 것 같으나 問題<sup>(11)</sup>는 그 社會를 構成하고 있는 社會構成員個個人의 基本的인 價值觀과 行動形態 및 그것의 外的表現인 諸制度의 併進的 變革에 依하여 만이 所期의 成果를 期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면 이미 指摘된 바와 같은 慮度의 變革과 그 外的表現인 行動類型의 近代化를 促進하여 Merton의 이론바 「役割의 漸進的 變化」(role-gradations)<sup>(12)</sup>라는 基本的 課題의 遂行을 위한 效果的인 方法은 어떠한 것이나 하는 問題가 남게 된다.<sup>(13)</sup> 이러한 方法論에 關해서는 社會學 및 社會心理學分野에 있어서 許多한 研究 및 實驗的研究에 따르는 諸學說의 異見이 있겠지 마는 簡單히一般的인 見解를 따르자면 社會的 環境의 變化 특히 그중에서도 對人關係에서 받는 影響力의 變化를 들 수 있다. 원래 人間關係의 形成과 諸形態를 規定짓는 基本的인 關係가 communication<sup>(14)</sup> 過程에서 發生하는 까닭에 그와 같은 影響力의 變化는 communication의 內容과 그 傳達形式의 變化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一切의 地域과 職

(9) Erich Fromm, The Sane Society 1955, pp. 79~83, 및 Escape from Freedom, 1941, p. 277.

(10) D. Lerner, The Passing of Traditional Society, Ill.; The Free Press of Glencoe, 1958 및 後進國의近代化段階에 關한 計數的 模型(a quantitative model of the 'social mobilization process)에 關해서는 K. W. Deutsch, Social Mobiliza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H.W. Eckstein and D.E. Apter, ed., Comparative Politics, The Free Press of Glencoe, 1963, 參照, 589~92.

(11) Norman S. Buchanan and Howard S. Ellis, Approaches to Economic Development, the Twentieth Century Fund, 1955, 日譯, 小島清, 後進國開發の展望, 上卷, 東洋經濟新聞, 昭, 23, p. 174.

(12) Robert K. Merton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rev. & enlarged ed., The Free Press of Glencoe Ill., 1957, p. 385.

(13) Merton은 一般的으로 社會構造의 效能(efficacy)은 結局 集團構成員에게 適當한 慮度와 感情(attitudes and sentiments)을 浸透시키는 것의 可能性 如否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Ibid., pp. 198~199 參照

(14) Communication에 關한 初期의 理論으로서는 Charles H. Cooley, Social Organization ☆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1909)를 들 수 있는데 最近 communication을 中心으로 人間關係의 立場에서 社會關係를 取扱한 Arnold M. Rose (Sociology; The Study of Human Relations, 1957)의 見解는 特異하다.

域에 있어서의對面的接觸關係에 있는 모든 primary group 내에서의 communication을 위시하여 國家的 communication의 典型的인 形態인 mass communication의 傳達內容이 傳統的인 信條, 價值, 習性, 生活樣式의 變革을 위하여 새로운 目標의 提示와 그에 必要하는 行動의 準則 및 價值觀의 提示를 위하여 機能하게 함으로서 韓國의「傳統的인 文化를 近代的인 政治, 經濟, 法律등의 諸制度」에<sup>(15)</sup> 適合하도록 變更하는 方法이다.

그러나 上記한 바와 같은 方法은 반드시前提의인 諸先行條件을 必要로한다.近代化를 위하여 主導的인 役割을 擔當하는 「社會階層的要素」<sup>(16)</sup>의 存在와 그들의「社會構造的再組織」이 바로 그 條件에 該當된다. 말하자면 Karl Manheim의 이론 바 「基本的인 價值과 政策(fundamental values and policies)」을 形成하여 維持하는 責任을 意慾하고 擔當하는 elite가 充分이機能하려면 elite<sup>(17)</sup>의 存在가 그것이다. 國民間에 相互接近할 수 있고 communicate 할 수 있는 社會體制 및 自己統制와 自己訓練이 具備된 mass media의 存在 및 普及이 또한 그先行條件의 하나가 된다.

以上과 같은 諸前提條件이 政黨과 官僚組織 및 企業體 그리고 各種 社會團體에 依해서 具備되고 그와 같은 大規模組織體가近代的인 諸價值를 communication media를 通하여 間斷 없이 發散하며 地域과 職域을 通한一切의 primary group의 排他心(particularistic) 즉 傳統的要因에 대한 指向心과 近代價值觀을 發散시켜 출때 primary group의近代化<sup>(18)</sup>를 通한近代化를 위한 ethos가造成되어 그것이 社會構造의 漸進的 變革을 招來하고 또한 餘他 政治, 經濟面에 加速度的인 影響을 주는 戰略的인 動因인 될 것이다.

### 3. 政府行政과의 關係

(1) 韓國의近代化를促進하는데 있어서 communication이 占하는 役割의 重要性은 이미概括的으로 檢討한 바와 같다. 그러나 韓國人의 態度의近代化라든가 그것을 通한 社會構造의 變革 및 政治·經濟의近代化는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政府行政機關을 비롯한各種社會集團——모든形態의——의 主導的인 役割의 自覺的인 先導없이는 그 實效를 期하기가容易하지 않지마는 그 중에서도 特히 政府行政機關 즉 官僚機構에 의한 意欲의인近代

(15) K.W. Deutsch, op. cit., pp. 582~3 및 Max F. Mitllikan and Donald L. M. Blackmer, op. cit., p. 75.

(16) 李萬甲教授는近代量生活속에서意欲要素들의社會構造의再組織이라고 보고主導的인要素가 없으면 몇개의要素의聯合的組織이라고可하다고 보고現在는主로官僚企業家들이나그들은前近代的性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東亞日報 1964. 1. 8面)

(17) Karl Manheim, Man and Society in an Age of Reconstruction, London, Kegan Paul, 1940, pp. 81~91 參照. 및 W. Kornhauser의 The Politics of Mass Society, p. 28.

(18) Primary group의近代化에關하여서는 Gabriel A. Almond and James C. Coleman, ed. The Politics of the Developing Area (Princeton Press 1960) pp. 24~25. 및 安海均, 小集團의社會的機能, 行政論叢, 行政大學院, 1962, pp. 257~263.

## 研究論文

化의 役割이 찾이 하는 比重이란 強調할 必要 조차 없다.

그 理由는 政府라는 權力機構가 龙大한 組織을 通해서 國民 個個人은 물론 企業體 및 各種 社會團體의 活動 方向을 決定하고 그들의 心理的 energy 는 물론 物質的 energy 의 全部를 組織化하고 動員할 수 있는 唯一한 能力의 受任者인 까닭이다. 그리고 行政府의 이와같은 性格은 오늘날 先後進國을 막론하고<sup>(1)</sup> 行政機能의 量的인 擴大와 質的인 強化現象으로서 表現되고 現代國家의 性格的 特徵을 過去의 法治國家라는 말 대시 行政國家라는 概念으로서 規定짓게 이르렀다. 이러한 行政國家에 있어서는 先後進國을 막론하고 複雜하고도 dynamic 한 對內外問題의 能率의이면서도 合理的인 解決을 위하여 漸次로 中央政府의 指導權의 強化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2) 그러나 여기서 問題되는 것은 前記한 바와 같은 政府行政이 따라야 할 基本的인 指導 原理가 무엇이며 그러한 指導原理에 따라서 그 무엇을 어떻게 確保하느냐에 關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두말 할 必要도 없이 現代國家에 있어서 指導原理는 行政의 能率化와 民主化라고 할 수 있다. 教育, 經濟 및 社會問題에 關한立法에서 부터 國內外의in 諸般問題에 關한 政策形成, 決定 및 執行過程에 있어서 그것을 如何히 能率化 하며 民主主義 價值를 具現시키느냐 하는 것을 内容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指摘한 바와 같은 能率化의 原理와 民主化의 原理는 서로 調和되기 어려운 것이어서 能率化의 原理의 追求는 民主主義의 價值의 相對的인 後退을 强要하고<sup>(2)</sup> 民主的 價值만의 追求는 相對的으로 能率化의 原理를 後退시키는 關係에 놓여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볼 때 兩者를 行政過程面에서 調整시킬 수 있느냐 하는 問題가 남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調和均衡의 追求는 逆說的으로 能率化라는 그 自體가 行政組織成員은 물론 特定한 政府機關의 政策과 直接間接으로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는 公衆(public) 또는 特定階層의 國民의 支持와 協調를 얻지 못하고 서는 實現되기 힘든 것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政策의 形成과 執行 過程에 있어서 그 自體가 民主的 價值를 우선 具現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見解다. 國民과 政府間의 距離가 可及의이면 短縮되고 政府機關에서 意欲하는 諸價値가 民衆 속에 充分히 散布 및 吸收될 뿐만 아니라 國民의 心理的인 energy 가 이에 依해 動員<sup>(3)</sup>될 때에 後進國에 있어서는 前記한近代化를 위한 政府行政의 能率化를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理由가 있는 까닭에 現代國家에 있어서 官僚機構는 國民個個人 말하자면 大衆을 이론바 「國家 communication」에 露出시키고 大衆行動의 方向操縱을 위하여

(1) K.W. Deutsch, op. cit., pp. 586~89. 後進國 일수록 政府行政의 擴大 強化 現象은 더욱 크다.  
'그것은 近代化의 時間을 短縮시켜야 하는 까닭이다.'

(2) P.M. Blau, Bureaucracy in Modern Society, 1956.

(3) Karl Manheim은 基本的 民主化(fundamental democratization)라는 概念을 使用하고 그 段階로서 地域的 孤立性, 傳統主義, 政治的 無關心으로 부터 새로운 生活樣式인 近代的 集團 生活樣式으로의 動員을 提示하였다. (K. Manheim, op. cit.)

大衆의 energy 의合理的인發散을 위하여 mass com. 을通한與論形成活動을 하게 된다.<sup>(4)</sup>

(3) 行政의能率化와民主化가現代行政國家活動의指導原理가 되는理由를보다具體的으로分析하고 그것을 communication을中心으로如何히確保할 수 있느냐하는問題의解明에는現代社會의構造的인特殊性을또한理解하지 않으면안된다. 원래前近代的 또는傳統的社會라고불리우는社會體制下에서는政治權力과個人間의communication이라는視角에서볼때個人은共同體를center으로하는이른바「傳統的生活空間」內에隸屬되어있었을뿐만아니라政府의communication組織과共同體內部의傳統的인communication의形態間에는斷壁이있어서封建社會下에서의權力秩序는社會成員인個人이아니라共同體를基礎로하는「多元的重層的性格」을가지고있었다.<sup>(5)</sup> 그러나產業化된現代社會에있어서는傳統的共同體를打破하여國家communication이組織化됨으로서個人은政治過程에露出되고특히communication의科學的인技術과手段의發達은教育의機會의增大現象과더불어普通選舉權의確立을結果하고官僚機構로서表示되는國家에대한個人의接觸을擴大시키게이르렀다.

이러한傳統的社會와近代的社會의體制를W.Kornhauser<sup>(6)</sup>는民衆과elite와의接近可能性(accessibility of elites와availability of none-elites)이라고하는變數(variable)로서區分하고있지마는前近代的社會의特徵이民衆과政治權力機構의相互接近과動員이라는角度에서볼때強力한外部의壓力이共同體의閉鎖性을浸蝕하지 않는限不可能한것이었는데反하여近代化된社會에있어서는그것이可能하게되었다는點에그現代社會의特色이있다고할수있다. 따라서이러한社會에있어서는傳統의權威가政策과社會를支配하는것이아니라大衆(mass)의意見이政策에關한事項에대하여直接의支配的影響을미치게된다.<sup>(7)</sup> 즉特權階層의支配代身에民衆의支持를받는elites에의한統治를받는것이特色이다.民衆의意思가政策決定에參與할機會를가질수있다는點, 말하자면民衆이統治集團에의接近이可能한社會構造(social structure possessing high access togoverning groups)라는點에그本質의性格의差異가있다.<sup>(8)</sup>

(4) 그러면具體적으로民衆의政策決定에의參與形式을알아볼必要가있다.民衆의政

(4) K.W.Deutsch, op.cit., p. 582. 著岡部史郎, 大衆社會と行政管理. 行政研究會編, 行政管理と經營, 東京, 昭. 36.

(5) 松下圭一, 現代政治過程における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 講座, 清水幾太郎編, 現代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總論, 河出書房新社, 昭. 36. p. 158.

(6) W. Kornhauser, The Politics of Mass Society, Free Press, Ill., 1959. pp.40—41.

(7) Ibid., pp. 27—28.

(8) Sidney Verba, (Small Groups and Political Behavior, A Study of Leadership.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1. p. 48.)에依하면前近代的社會에서는primary group이政治機能의擔當者로서의役割을하는것이支配的인形態이나近代的社會에서는一般的인것은아니나公式組織과primary group이擔當한다. 이러한問題에關해서는安海均, 前揭書, p. 261에具體的으로言及되어있다.

## 研究論文

策參與形式을 政治過程論의 立場에서 볼 때 세가지의 複線으로 表現된다.<sup>(9)</sup> 첫째는 政治過程의 正式過程으로서의 選舉制度를 들 수 있다. 教育機會의 增大, 普通選舉權의 確立으로 因해서 政黨의 組織基盤이 大衆에 뿌리밖へ 되어 個個人(比例代表制의 경우)의 意思가 投票行爲를 通하여 政黨을 選擇하고 選擇한 政黨의 政綱政策을 媒介로 그들의' 意思는 議會 및 行政部의 政策決定에 參與하게 된다는 法式이다. 둘째로 諸社會集團의 對 立法部 및 行政部에의 活動<sup>(10)</sup>을 들 수 있다. 現代社會는 高度로 그 社會的 機能이 分化되어 各種 職能團體의 數的인 增加現象을 露呈시키고 있는데 이들은 各己의 利益增進을 政策形成과 執行面에 反映시키거나 또는 恵澤을 얻고자 各種 壓力活動을 展開하게 된다. 따라서 個個人의 意思는 各種 職能團體의 活動을 通하여 政策에 影響을 미치게 된다. 셋째로 指摘되는 것은 mass com. 이다. mass com.은 政黨과 各種 職能團體의 活動狀況을 民衆 個個人에게 報導傳達하여 줄 뿐만 아니라 懸案된 政策의 阻止 및 推進機能을 하는 한편 社會底邊의 民衆의 意思를 政策樹立層에 反映시키는 壓力活動(輿論形成)을 擔當하게 됨으로서 政策決定 및 執行過程에 있어서 feedback(自動調整)作用을 하게 된다. 實로 mass com.은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政治過程을 理解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重要한 因子로 보지 않을 수 없다. 前記한 바와 같은 機能의 役割을 mass com.이 擔當하고 있는 까닭에 mass com.의 運動形態 및 mass media의 普及度를 가지고 特定國家社會의 權力構造와 經濟構造 및 社會體制를 端의 으로 反映하는 因子로 取扱하려는 傾向이 一般的이다.<sup>(11)</sup>

以上에서 考察해온 바와 같이 產業化된 先進國의 경우는 말할 必要 없고 後進國家에 있어서의 行政의 民主化를 通한 行政의 能率化는 傳統的 生活樣式과 價值觀의 霸絆으로 부터 民衆을 逸脫시킬 수 있는 強力한 外部의in 影響力이 있어야 하고 民衆을 새로운 價值觀과 生活樣式와 行動目標와 方法을 提示하는 國家的 communication에 露出시키는데서 부터 出發하여 그들로 하여금 同一한 刺戟과 說得에 대한 共通의in 反應(act in similar way)度를 나타내게 하는 것을前提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sup>(12)</sup> 民主主義란 實로 國民이 다自己가 選擇한 政府의 權力構造를 理解하고 政府의 基本政策을 統制 또는 그것에 대해 呼應할 수 있

(9) 篠原一, 現代の政治力學, みすず書房 東京, 昭. 37 pp. 49—50.

(10) Avery Leiserson, Administrative Regulation. A Study in representation of interest, Univ. of Chicago Press, Chicago, Ill., 1942. pp. 1—4 參照。

(11) 이와 같은 立場을 取하는 代表的 學者로서 Wilbur Schramm 이 있다. 그에 依하면 Mass Communication의 內가지 理論으로서 Authoritarianism, Libertarianism, Soviet Communist Theory, Social Responsibility Theory 를 들고 있다. (Wilbur Schramm, Responsibility in Mass Communication, N.Y. Harpers & Brothers. 1957. pp. 61—99.)

(12) 大衆의 狀況下에서는 民衆은 同一한 刺戟을 받고 있으므로 同一한 樣式으로 行動할 可能性이 있다. (Arnold M.Rose, Theory and Method in the Social Sciences. Univ.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164. p. 27) 그러나 二重的 社會體制下에서는 여러가지 問題點이 介在하고 있다. 여기에 關해서는 Lucian W. Pye, The Non-Western Political Process, in H. Eckstein and D.E. Apter, op. cit., pp. 657—664. 參照할 것.

## 韓國의近代化와 Communication.

는 政治意識과 政治指導層과 國民間 그리고 國民 個個人을 連結하여 주는 communication이 健在할 때 비로서 그것이 可能하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政治의 安定을 期하고 政治指導層이 提示하는 目標指向을 위한 國民의 energy 動員은 權力의 物理的操縱과 合理的行政體制 및 科學的行政管理技術 뿐만이 아니라 國民을 心理的으로 組織化 할 수 있는 價値와 目標 및 方法을 傳達할 수 있는 心理的傳達力의 擴大가 반드시 隨伴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communication이 지닌 後進國에 있어서의 使命이라고 생각된다.

### 4. Media 利用度

韓國에 있어서 communication의近代化가 傳統的인 것과 近代的인 것이 뒤섞여 있는 이른바 「二重的社會構造」의 止揚과 아울러 政治 및 經濟發展을 위한 政府施策의 效率的인 구현과 그를 위해 必要한 國民 個個人의 物質的生活의 動員은 물론 그들을 心理的으로 組織化하고 行動의 새로운 方向을 傳達하는 役割을 擔當한다는 點에 있어서 그意義가 자못 크다는 問題意識은 이미 提起한 바와 같다.

그러면 現在 韓國에 있어서의 communication은 어느 程度近代化의 段階에 놓여 있을까, 특히 media의 利用度面에서 볼 때 communication構造가 어떤 狀態에 놓여 있으며 그와 같은構造에 있어서 政府機關 및 社會集團과의 國民間의 距離 및 communication을 阻害하는 要因이 무엇인가를 發見하는 것이 將來를 展望하고 對策을 講究하는데에 捷徑이 될 출로 밂는다.

오늘날 特定國家에 있어서의 media의 利由度는 國民所得과 產業發展 程度에 比例하고 있음을 이미 周知된 事實이다. 現在 世界各國의 media의 普及度를 보면 radio受信機의 경우 85%, 全新聞發行部數의 80% 그리고 劇場觀覽座席의 70%以上이 歐羅巴와 北美에 集中되어 있다고 W. Schramm<sup>(1)</sup>은 指摘하고 있다. 따라서 그外의 非西歐的인 後進地域에 있어서의 media普及度는 極히 低率을 나타내고 있는 實情이다. 말하자면 後進國의 media利用度는 經濟發展과 密接한 關係를 맺고 있는 까닭이다. UNESCO는 이와 같은 面을 考慮해서 communication分野에서의 援助對象이 되어 있는 後進國家를 다음과 같이 media를 中心으로 規定을 하고 있다.<sup>(2)</sup> UNESCO統計에 依하면 後進國은一般的으로 人口 100人當日刊新聞이 10部 Radio受信機 5臺 映畫觀覽席 2席에 미달하는 國家들이라고 한다.<sup>(3)</sup>

이러한 UNESCO基準과 比較하여 볼 때 韓國은 1962年 現在(總人口를 26,200,000名으로概算하면) 人口 100人當 新聞의 경우는 3部 radio 2.7臺<sup>(4)</sup> 劇場觀覽席 0.8席으로 算

(1) Wilbur Schramm, The Process and Effects of Mass Communication, (Univ of Illinois Press, Urbana, 1961) p. 74.

(2) Papers on Mass Communication in Asia, Palo Alto Stanford Univ. Communication Research Institute, 1960. p. 3.

## 研究論文

出되는 實情이다. UNESCO 統計에 比할 때 新聞은 7 部, radio 受信機 2,3 臺, 觀覽席 1.2 席이 未達하여 media 利用度面에서 볼 때 後進性을 不免하고 있다. 그 內譯을 具體的으로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media	總數	100人當比率	備考
新聞	790,261	3.01部	街頭販賣部數는 除外
radio	706,491	2.7臺	
有線 speaker	544,600		4.9臺
劇場觀覽席	209,737	0.8席	

(6)

以上과 같은 media 를 種類別로 分析하면

### (3) 代表的 國家의 mass media 利用度

國家名	新聞部數(100人當)	라디오受信機臺數(100人當)	映畫觀覽席數(100人當)
佛蘭西	25.9	17.9	6.4
伊太利	9.8	5.5	8.7
에칠리트	1.7	1.2	1.0
씨리아	1.9	1.5	0.7
印度	0.6	0.1	0.4
日本	22.4	10.6	0.8
比律賓	2.5	0.4	(?)
부라질	3.0	5.1	2.0
멕시코	4.8	3.1	5.7
英國	59.6	24.4	8.6
美國	35.0	62.0	7.8

(Source: UNESCO 統計)

### 共產圈內의 mass media 利用度

國家名	新聞部數(100人當)	라디오受信機臺數(100人當)	映畫觀覽席數(100人當)
朝鮮	16.1(?)	6.7	(?)
中國	1.0(?)	0.3	0.1
체코슬로바키아	19.3	18.8	5.6(?)
폴란드	12.2	4.9	0.9
우마니아	14.1	1.7	0.7
헝가리	10.8	5.7	1.5
불가리아	11.2	2.9	1.3

(Source: UNESCO 統計)

Wilbur Schramm, ed., The Process and Effects of Mass Communication. (Univ. of Illinois Press, Urbana, 1961.) pp. 74~75. 參照

(4) 有線 speaker 를 包含시켜 計算하면 4.9 臺로 計算된다.

(5) 新聞에 關한 詳細한 統計는 公報部調查局, 全國新聞普及實態(全國弘報媒體實態調查報告結果第二輯) 1963. 1. 參照

其他 劇場觀覽席에 關해서는 公報部 F.Y. 62 公報行政教材, 二輯, 1962. pp. 63~64.

특히 Radio에 關한 統計는 公報部調查局, 全國라디오普及實態 1963. 1. 現在 參照

新聞의 경우 10 個都市의 街頭販賣部數인 224. 181 를 包含시킨다면 總發行部數는 1,014,442 部로 增加된다.

Communication Problems of Underdevelopment: Cheju-Do, Korea, 1962 By Richard A. Garver. *Public Opinion Quarterly*, Winter, 1962. pp. 613~625 를 參照하면 Garver 는 全國總發行部數를 971, 437 로 計算하고 있다.

① 「新聞」의 경우 全體發行部數의 72%는 10個 都市<sup>(6)</sup>에 配布되고 있어서 全體人口의 22%가 全體 日刊新聞 發行部數의 72%를 購讀하고<sup>(7)</sup> 있는 까닭에 殘餘 28%의 新聞을 全體 人口 78%가 購讀하고 있다는 實態를 發見할 수 있다. 이러한 實情을 볼 때 韓國의 新聞은 主로 都市人에 依하여 利用되고 農漁村民은 新聞에 接近하기가 極히 어려운 立場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理由는 여러가지 要因중에서도 經濟的要因, 教育的 水準과 같은 것 이 第一 큰 원인이지마는<sup>(8)</sup> 餘他의 後進國의 경우와는 달리 比較的 文盲率<sup>(9)</sup>이 적은데에도 不拘하고 그러한 現象을 더욱 特徵지우는 또하나의 원인은 新聞發行 總部數의  $\frac{2}{3}$ 가 서울, 나머지  $\frac{1}{3}$ 이 地方이라는 點에서 發見되고 新聞製作이 都市人 中心이 되어 있다는 點에서 發見 된다고 볼 수 있다.<sup>(10)</sup> 말하자면 新聞의 内容이 農漁民의 口味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切實한 要望에 應할 수 없다는데 그 큰 理由가 있다. 이러한 事實은 다음과 같은 調査資料에 依해서도 說明될 수 있다. 즉 1960年 11月에 實施한 政府의 第一回 輿論調查結果에 依하면 新聞은 全然 보지 않는다는 사람이 全體의 70%, 가끔 본다가 14.1%, 每日 본다가 15.9% 인데 購讀新聞의 種類別로 보면 中央에서 發刊되는 強한 普及率을 가진 諸新聞(東亞—28.2%, 朝鮮—16.7%, 韓國—15.5%)에 比해서 地方紙가 22.1%라는 相當히 높은 購讀率을 보이고 있다<sup>(11)</sup>는 事實과 1961年 第二回 國民輿論調查結果가 提示하는 바 地方紙가 全體의 24.8%를 占有하고 있어서 그 地方紙에 대한 接近傾向이 더 증가하고 있다는 點<sup>(12)</sup> 및 1962年 調査<sup>(13)</sup>에 있어서는 地方紙가 28.9%의 上昇率을 보이고 있다는 點이다. 結局 地方紙의 記事が 迅速하다는 點과 自己周邊의 일을 많이 取扱해 준다는 點에서 地方民의 好感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1962年 現在 韓國에 있어서의 新聞購讀狀態를 보면 教育水準이 높은者(主로 大學出身)의 경우에는 92.5%가 每日 보고 있는데 反하여 20歲以上 成人으로서 每日 본다는 사람의 數

(6) 서울, 釜山, 大邱, 仁川, 光州, 大田, 木浦, 濟州, 延州, 江陵.

(7) R.A. Garver의 前揭書를 參照.

(8) 傳統的社會에 있어서는 經濟的 條件과 教育水準의 向上에 따라서 mass com.은 擴大된다.(李萬甲 傳統的 社會에 있어서의 Personal communication과 Mass communication, 時事. 1962. 7. pp. 2~5 參照)

(9) 韓國에 있어서 文盲은 360萬名으로서 23%를 痊이 하고 있다.(Student Participate in "Help Villagers Campaign," Korean Journal, Vol. 2, No. 2, Feb, 1962, p. 36) 반면 UNESCO 出版物에는 韓國成人의 60~65%가 文盲이라고 海外에 紹介되어 있다(Basic Facts and Figures, Paris, UNESCO. 1959, 및 R.A. Garver 前揭書參照). 餘他 後進國의 경우를 보면 Mexico—40~45(%), 파라과이—40~45(%), 큐바—20~25(%), 부라질—50~55(%), 土耳其—65~70(%), 에티오피아—95~99(%), 가나—75~80(%)으로 紹介되어 있다. (邊時敏, 後進國의 社會構造와 公報活動, 公報, 公報部, 서울, 1963, 創刊號, pp. 62~63 參照)

(10) 邊時敏, 上揭書, p. 63.

(11) 國務院事務處, 第一回 國民輿論調查實施結果報告書, 4293, 11, pp. 28~29.

(12) 公報部, 第二回 國民輿論調查結果報告書, 4294. 8. p. 21.

(13) 公報部, 全國國民輿論調查結果報告書, 1962. 7. p. 226.

## 研究論文

는 全體 成人の 19.1%에 해당되고 안본다는 사람의 數는 全國的으로 볼 때 62.8%, 面民의 경우에는 全體 成人の 74.4%라는 高率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끔 본다는 사람이 13.6%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1961 年度의 資料를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1961	1962
毎日본다	20.1(%)	19.1(%)
가끔본다	12.6	13.6
안본다	67.0	62.8

그리고 購讀하지 않는 理由로서는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經濟的 理由로서 「돈이 없는 까닭」이 第1位로서 全體의 57.5%를 차지하고 文盲이 22.6%로서 第2原因을 이루고 있다. radio 가 있는 까닭에 購讀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5.6%에 不過한다.<sup>(15)</sup>

韓國에 있어서의 新聞普及度를 行政區域別로 分析 比較하여 보고 그것을 人口 100人當의 購讀部數로 算出하여 보면 各道의 近代化 程度를 推測할 수 있다. 1963年1月 現在의 調査 資料<sup>(16)</sup>에 依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地域別	100人當	順位
서울特別市	7.5(部)	1
釜山市	5.7	2
京畿道	2.8	4
江原道	3.8	3
忠淸北道	2.2	6
忠淸南道	1.6	10
全慶北道	1.8	9
全羅南道	1.9	8
慶尙北道	2.6	5
慶尙南道	1.8	9
濟州道	2.0	7

以上의 資料分析에 依하면 新聞의 購讀率은 產業化, 都市化 程度 및 教育程度에 따라서 差位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第一次 產業에 支配의인 地域은 新聞의 利用度가 極히 低位인데 반하여 江原道와 같이 地理的 條件이 不利한 곳이라도 產業化가 促進되는 地域은 相對的으로 높은 比率을 보이고 있다. 特히 國文不解得者가 500,000名을 超過하는 全羅南道(509,881) 慶尙北道(509,612) 慶尙南道(664,470) 등<sup>(17)</sup>의 地域에서는 極히 低率을 나타내고 있는 實態이다.

(14) 公報部, 第二回 輿論調查, 上掲書 p. 20.

日本의 경우를 보면 7割의 農家가 地方紙 2~4割이 中央紙를 購讀하고 있다. (清水幾太郎,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原理, pp. 205)

(15) 公報部, 前掲書, pp. 233~235, 參照

(16) 公報部, 全國新聞普及實態, 1963年1月 現在 參照.

(17) 經濟企劃院, 第九回 統計年鑑, 1962. pp. 22~23 參照.

끝으로 韓國에 있어서 新聞普及의 增加率은 1961年 9月 現在와 1963年 1月 現在에 있어서의 資料를 中心으로 볼 때 全國的으로 6.47의 比率을 表示하고 있는데 中央에서 發刊되고 있는 新聞의 增加率은 平均 6.14이고 地方紙의 경우는 5.40이다.<sup>(18)</sup>

② 「Radio」, 韓國에 있어서 radio가 차지하는 役割은 他 media에 比해 更高 높이 評價할 수 있다. radio 受信機 및 有線 speaker가 農漁村에 있어서는 主要한 news source의 役割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新聞의 경우와 比較하여 볼 때 1962年 7月 現在 農漁村地域인 面에 있어서 radio를 news source로 하고 있는 사람은 28.6%인데 比하여 新聞은 8.6%에 不過하며 全國的으로는 radio가 28.6% 新聞이 16.9%의 比率로서 news source의 役割을 遂行하고 있다.<sup>(19)</sup> 漢字와 國文不解得者가 많은 農漁村地域에 있어서는 radio 야말로 近代化를 위한 斥候兵의 役割을 하고 있다. 教育水準이 下位일수록 radio가 主要 news source 役割을 하고 있다. 他 media와 比할때 radio가 차지하는 優位性은 主로 聽取料를 받지 않는다는 點(有線 speaker의 경우는 다르다)과 radio의 機能으로서의 同時 大量傳達性이라는 點 그리고 報導內容以外에 啓蒙, 教養, 娛樂의 内容이 聽取動機를 誘發시킨다는 點 및 文盲者도 利用할 수 있다는 點이 그 原因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62年 現在 地域別로 본 news source로서의 radio 利用度와 그것을 1961年の 경우와 比較하여 보면 下記 表와 같다.<sup>(20)</sup>

	1961	1962	增加率
全國	16.2%	28.1	12.1
特別市	29	34.1	5.1
市	16.2	23.8	7.6
邑	14.9	25.8	10.9
面	14.8	28.6	13.8

上記한 資料分析에 의하면 radio의 利用度의 增加率은 新聞의 경우와 比較하여 볼 때(中央紙—6.14 地方紙—3.4) 极히 높은 增加率임을 알 수 있다. 特히 地方에 갈수록 이러한 傾向이 強한 原因은 主로 有線 amp speaker 施設의 普及과 政府機關을 비롯한 社會團體의 積極的인 普及活動 및 支援이라고 생각된다. 1962年 現在 全國의 radio 普及實態는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radio 受信機—706,491臺에 有線 speaker—544,600를 合하면 總 1,250,091臺이다. 이려한 radio의 普及狀況을 地域別로 分析하고 그것을 100人當 普及度로 對比하여 보면 下記와 같다.<sup>(21)</sup>

(18) 公報部, 全國新聞普及 實態, 前揭書 p. 7.

(19) 公報部, 全國國民輿論調查結果報告書, 1962. 7. p. 27. 參照.

(20) 公報部, 第二回 輿論調查, 前揭書, p. 25 및 全國國民輿論調查, 前揭書, p. 27 參照.

(21) 公報部, 調查局, 全國라디오普及 實態, 1963年 1月, p. 12 參照.

## 研究論文

地域別	100人當	順位
서울特別市	9.9	1
釜山市	4.8	4
京畿道	6.7	2
江原道	4.1	5
忠淸北道	5.9	3
忠淸南道	4.8	4
全羅北道	3.9	6
全羅南道	3.3	8
慶尙北道	3.3	8
慶尙南道	3.4	7
濟州道	2.5	9

以上의 資料에 의하면 1962年 現在 韓國人 100人當 radio 普及度는 4.9臺로 算出된다. 地域別 普及實態를 볼 때 radio의 경우는 新聞의 경우와 相異한 順位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有線 speaker 普及이 個人이 아니라 企業主 및 公共機關의 關心과 活動性에 依存되고 있었던 까닭에 個人自身의 경우인 新聞의 경우와는 다른 實情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되며 그 외에도 地理的條件에 따라 radio受信機의 聽取難易度가 생기는데 이러한 條件도 또 한가지 원인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된다.

radio受信機의 增加率을 1961年 9月 現在와 1963年 1月 現在를 對照하여 보면 上記한普及實態의 内容을 理解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1961年 9月과 1963年 1月 現在의 資料를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種 别	1961.9.	1963.1.	增加率
電蓄式 radio	37,833	59,300	156.74
電氣用	223,340	264,272	118.33
乾電池專用	99,735	92,852	93.10
電氣·乾電池併用	32,422	37,713	116.32
트란지스타	81,626	202,298	247.91
鑽石式	51,689	50,056	96.84
Speaker	107,740	544,600	505.48
其 他(TV 包含)	8,373	35,122	419.47

上記 資料에 의하면 全體의 增加率은 200.16%이 된다. 이중 增加率에 가장 上昇의인 것은 增加率 505.48%인 有線 speaker 이고 다음이 「트란지스타」인 247.91%을 들 수 있는反面 電氣專用 radio의 增加率은 118.33%으로서 極히 低率을 나타내고 있어서 全體의인 平均增加率인 200.16%을 下回하고 있는 不健全한 傾向을 보이고 있다. T.V.의 增加率은 軍事革命下에서 419.47%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主로 서울 및 釜山地域에 限定되고 있다

(22) 上揭書, p. 9 參照.

는點에 그畸形性이 있다.

radio 普及面에 있어서 끝으로 家口別 利用度를 보기로 한다. 1963年 1月 現在 radio 를 가지고 있는 家口는 全國的으로 34.9%, radio 가 없는 家口는 64.8%이라는 高率로 推計된다. 都市의 경우 특히 서울에서는 radio 有家口가 63.2% 無家口가 36.8%의 比率로서 特異한 實態를 나타내고 있는데 反하여 市와 邑面으로 내려 갈수록 없다는 家口가 더 많다. 特히 面地域에 있어서는 있다는 家口는 28.3%이고 없다는 家口는 71.4%에 해당된다. 家口當 利用度를 地域別로 對比하면 下記 表와 같다.<sup>(23)</sup>

地域別	있다	없다	무응답
서울	63.2(%)	36.8	—
市	41.1	58.8	0.1
邑	32.6	66.8	0.6
面	28.3	71.4	0.3

聽取度를 中心으로 韓國人의 radio 利用度를 보면 新聞의 경우와 같이 地方放送 보다 中央放送을 듣는 사람이 더 많다.<sup>(24)</sup> 그 主된 理由는 地方放送局이 獨自의 放送內容을 編成하는 것이 아니라 主로 中央放送을 中繼하고 있다는데 있다. 新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韓國人은 自己周邊에 關한 知識의 傳達보다도 國內外一般的인 知識을 더 많이 供給 받고 있는 實情이다. 具體的으로 放送聽取 内容을 보면 國營放送인 서울中央 第1放送이 86.1%로서 第1位를 차지하고 있고 民營放送<sup>(25)</sup>은 11.6%를 차지하고 있다.

中央放送의 聽取度를 地域別로 보면 서울—60% 市—70.5% 邑—91.3% 面—97.0%<sup>(26)</sup> 말하자면 地方으로 내려갈 수록 中央 第1放送의 利用度가 큰데 市로 올라 올수록 官營放送의 聽取度는 相對的으로 低下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特別市 및 市 地域에 있어서는 民營放送의 利用度가 極히 높은데 이는 學力水準이 높은 層이 대부분이다.<sup>(27)</sup> 대부분의 農漁村地域은 民營放送의 出力關係로 可聽圈 밖에 있음으로 거의가 이를 利用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리고 民營放送을 年齡이 낮은 層이 壓倒的으로 많이 利用하고 있다.<sup>(28)</sup>

聽取時間은 中心으로 본 때 韓國人의 radio 利用度는 餘暇時間, <sup>(29)</sup> 生活時間, 季節關係.

(23) 1962年度, 全國輿論調查, 前揭書, p. 213 參照.

(24) 韓國에서 聽取可能한 國內外放送은 11個이다.

(25) 民營放送局으로 代表的인 것은 서울文化放送, 서울基督教放送, 仁川福音放送, 釜山文化放送 및 서울의 東亞放送을 들 수 있다.

(26) 上揭書, pp. 29~30 參照.

(27) 「서울文化放送」은 서울地域에서 34.2%의 聽取率을 나타내고 있고 釜山에 있어서는 釜山文化放送이 16.0%를 나타내고 있다, 學力水準과 放送局選擇傾向은 公報部, 放送에 대한 全國輿論調查結果 1963. 7. p. 34 參照.

(28) 上揭書, p. 34.

(29) 先進國家에 있어서는 餘暇時間(leisure)이 國民所得의 增加와 比例하여 上昇하고 있는데 美國은 1960年 現在 一人當平均 餘暇는 一日當 7.8 時間이다. 그리고 餘暇時間과 media 接近度는 比例한다고 보는 것이 一般的인 見解다.

## 研究論文

放送内容 競争放送局의 푸로에 依存되는 바 크다. 1日中 聽取時間 別로 보면 全國의 으로 午後 8—9時가 20.4%, 正午 12—午後 1時가 12.9%, 午後 7—8時가 11.9% 午後 9—10時 11%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sup>(30)</sup> 이것을 다시 聽取時間의 量的인 面에서 본 때 1日 平均 5時間 以上 듣는 사람이 25.5%이고 2~3時間은 듣는 사람이 24%이고 殘餘는 2時間 以下인데 5時間 以上 듣는 年齡層은 20~30 歲이고 2~3時間의 경우는 40~50 歲가 第一 많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地域別로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地域別	聽取時間 및 順位		
	(1)	(2)	(3)
서울	5時間以上	2~3時間	3~4時間
市	2~3	1~2	3~4
邑	2~3	1~2	3~4
面	5~	2~3	3~4

이 調査資料에 依하면 放送을 第一 많이 듣는 地域으로 意外에도 農漁村地域인 面임을 알 수 있다. 밀하자면 市와 邑과 같은 中間地域層에서 보다도 面에 있어서 radio의 役割과 影響力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放送內容의 效果는 아직 面地域에서는 커다란 問題點을 提示하고 있다. 그것은 主로 放送用語의 理解度에 關한 問題다. 韓國의 職取者는 音樂 푸로 다음으로 news 放送을 더 듣고 싶어하는 傾向이 있는데 news 用語 및 各種 教養 푸로의 用語를 잘 理解하지 못하는 層이相當이 있다는 點이 communication의 效果를 阻害하고 있다. 公報部 調査에 依하면 全國의 으로 「알아 들수 있다」는 사람이 61.9%이고 「多小 어렵다」가 27% 「알아 들을 수 없다」는 8.6%로 나타나 있다. 多小 어렵다, 알아 들을 수 없다고 答한 者의 比率을 合하면 實로 35.6%라는 相當한 數字를 表示하고 있다. 이를 地域別로 보면 다음과 같은 實態를 提示한다.<sup>(32)</sup>

地域別	理解可	多小困難	理解不可	其 他
서울	80.0(%)	12.0	5.8	2.2
市	79.1	13.1	4.1	3.7
邑	74.8	22.0	2.4	0.8
面	50.1	35.9	11.7	2.3

이 地域別實態를 보면 都市에서 面으로 칼수록 放送用語의 理解度는 低下되고 反對로 困難度가 上昇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現象을 教育水準과 相關시켜 볼 때 中學校以上의 學歷을 가진 層은 90%가 用語를 理解하고 있는데 反하여 國民學校 卒業層의 35%는 理

(30) 上揭書, p. 34 參照.

(31) 公報部, 放送에 대한 全國 聽取者輿論調查結果, 前揭書 參照.

(32) 上揭書, pp. 53~56.

解하는데 困難을 느끼고 있는 形便이다.

(3) 「映畫」, 劇場觀覽席과 映畫觀覽回數가 新聞 및 radio에 뭇지 않게 特定國家社會의 communication의 近代化를 測定하는 主要한 index 임은 一般的으로 認識된 事實이다. 韓國에는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劇場觀覽席은 1962年 現在 全國的으로 209,737席으로서 人口 100人當 0.8席이라는 低率을 나타내어 UNESCO 基準인 2席을 超過하지 못해 亦是 後進狀態를 脫皮하려면 遙遠한 立場에 있다.

우선 劇場의 數가 都市에 集中되어 있는 까닭에 觀覽座席數도 都市地域에 集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33)</sup> 劇場의 總數는 492個이며 映寫機保有量의 總數는 955臺로서 이중 16m/m 가 8臺 35m/m 가 938臺이고 70m/m는 9臺가 된다. 이와 같은 民營劇場 및 映寫機以外에 政府의 公報機關에서 保有하고 있는 移動映寫機의 總數는 總 191臺(그중 16mm 183臺 35m/m 8臺)와 幻燈機 501臺가 現在 韓國民이 利用할 수 있는 映寫機의 實態다.<sup>(34)</sup>

그러면 上記한 施設이 주는 與件下에서 韓國人의 映畫利用度는 어느 程度가 되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公報部 調查資料<sup>(35)</sup>에 의하면 韓國人은 月 平均 映畫를 3.2回의 觀覽回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內譯別로 보면 5回以上이 第一 多은 數로서 27.2% 3回가 24.8% 그리고 2回가 20.1% 4回와 1回로 각각 12.2%의 比率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回數는 年次의 으로 增加하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는데 1961 年度의 月 平均回數 3回에 比하면 0.2回의 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性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sup>(36)</sup>

性別 映畫觀覽回數

	1(回)	2	3	4	5
男	10.5(%)	18.2	24.3	12.5	36.5
女	15.9	22.9	25.9	11.5	18.9

즉 女子보다 男子가 더 많이 가고 1人當 月通算平均值에 있어서 男子는 3.4回 女子는 2.9回로 나타나고 있다.

年齡別로 보면 30代가 가장 많이 가는 편인데 回數는 月 3.4回다. 20代는 3.2回로서 30代 다음에 가고 있다. 學力別로 보면 中高卒業者가 第一 多은 月 平均 3.4回를 가지고 있으며 大學程度의 教育을 받는 者는 3.2回이고 國民學校出身은 2.8回를 본다. 그런데 여기서 韓國의 近代화와 關聯되어 있는 地域別 觀覽回數가 問題된다. 地域別로 보면 地方으

(33) 全國劇場數의 地域別分布를 보면 서울이 70 釜山이 48을 차지하고 있어 全體의 492個中 118가兩大都市에 集中化되었다. 京畿道(59) 江原道(53) 忠北(19) 忠南(42) 全北(33) 全南(48) 慶北(64) 慶南(49) 濟州(7) 公報部, 公報室, 劇場實態調查, 1963年 1月 p. 31 參照.

(34) 上揭書, p. 11 參照.

(35) 公報部 調查局, 映畫에 대한 輿論調查結果報告書, 1962. 11, pp. 32~71 參照.

(36) 上揭書, p. 71.

## 研究論文

로 갈수록 回數를 增加하는 傾向이 있다. 서울은 3.1회인데 市는 3.3회, 邑은 3.4회가一般的이다. 具體的인 内譯을 보면 下記와 같다.<sup>(37)</sup>

	1回	2	3	4	5	其他
서울	12.0	22.2	27.1	10.9	21.1	6.6
市	12.3	19.4	23.5	14.3	29.0	1.5
邑	12.3	17.3	22.7	12.1	34.8	0.8

그런데 여기서 重要한 事實은 面의 資料가 提示되지 않아 그 回數를 알 수 없다는 點이다. 그것은 大部分의 面地域에 사는 農漁村民은 映畫觀覽을 할 時件下에 놓여 있지 못하며 公共機關 特히 政府의 公報機關에서 巡回上映하는 映畫를 보는 機會 밖에 없는 까닭이다.

政府의 公報活動의 일환으로서 巡回映畫 上映 實績을 通해 面民의 回數를 推測할 方法 밖에는 없다. 그러면 政府의 上記한 巡回映畫回數는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 보기로 한다. 政府公報組織을 通한 移動上映 回數는 1962 年度에 總數 7,599 회에 達하고 있다.<sup>(38)</sup> 全國의 「面」의 數는 1,382 個<sup>(39)</sup> 인데 1 年間에 1 個面當 平均 3.8 回數로 計算된다. 그러므로 面民은 年平均 3.8 以下の 觀覽回數를 가지게 되는 셈인데 觀覽層의 多數는 30 代 以下의 젊은 層이라고 생각된다. 그 理由는 上映場所와 距離關係로 30 代 以上으로서 特히 婦女들은 參觀하는데 極히 不便한 立場에 놓여 있는 까닭이다.

上記한 62 年度 移動上映 回數를 地域別로 보고 1 個面當 上映 回數를 推算하면 다음과 같다.<sup>(40)</sup>

地域別	62年度移動上映回數	面(個)	面當回數
서울特別市	154	—	—
釜山市	—	—	—
京畿道	714	185	3.8
江原道	819	101	8
忠淸北道	1,893	99	2
忠淸南道	1,189	164	7
全羅北道	481	155	2.4
全羅南道	672	215	3
慶尙北道	1,195	238	5
慶尙南道	473	215	2
濟州道	9	10	0.9

上記한 資料分析에 의하면 韓國의 農漁村民의 年間 映畫觀覽回數는 最下 0.9 회에서 最高

(37) 上揭書, p. 72.

(38) 公報部 調査局, 公報室·劇場實態, 1963年 1月 現在, p. 11.

上映回數인 7,599에서 서울特別市(154回)를 減하면 7,445 회가 되는데 他市邑에서의 上映回數를 減하면 總數는 더욱 減少될 것이다.

(39) 公報部調查局, 全國行政區域一覽, 1963年 1月 現在 p. 9 參照.

(40) 公報部, 公報室劇場實態 前揭書, 參照.

8回에不過하고 平均 3.8回의 觀覽回數로서 算出된다. 말하자면 面地域에 있는 住民은 韓國人口의 過半數를 차지 하는데 이들이 보는 映畫回數는 市邑 地域住民들의 約  $\frac{1}{12}$  程度에 不過하다는 結論이 나온다.

## 5. Communication 構造

韓國에 있어서의 communication 構造는 社會構造와 權力構造 그리고 經濟構造를 端的으로反映하고 있다. 近代的인 것과 傳統的인 것이 混合된 價值體系에 立脚한 韓國社會의 構造의 特徵은 communication에 있어서 media를 通한 communication이라기 보다는 opinion leader를 中心으로 하는 personal communication이 支配의 形態로 나타나고 있다.<sup>(1)</sup> 이와 같은 原因이 되는 것은 經濟構造의 畸形性<sup>(2)</sup>에 따르는 實質的 所得水準의 低位 및 義務教育의 後進的 實施에 따르는 基本的教育水準의 低調와 낮은 意識水準 그리고 李朝五百年間支配의 人間關係의 規範이었던 權威主義를 內容으로 하는 三綱五倫 思想등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personal communication은 media普及이 低調한 農漁村地域에 있어서支配의 인데 農家人口는 1962年現在 58.2%로서 非農家人口 41.8%에 比해서 16.4%가 더 많은 形便이고 第一次 產業에 從事하는 人口는 6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數字로 볼 때 韓國人口의 66.2%가 media를 通하는 communication에 露出되는 것이 아니라 傳統의 personal communication에 依存하고 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實情은 韓國人の 意識構造와 價值觀의 同質性 確保를 阻害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政府機關 및 公共團體와의 社會의 距離의 短縮을 困難케 하고<sup>(3)</sup> 새로운 技術과 知識 그리

(1) Opinion leader가 communication過程에서 遂行하는 役割에 關해서는 The Two-step flow of communication에 關한 假設(ideas often flow from radio and print to the opinion leaders and from them to the less active sections of the populations)이 있는데 이 假說이 選舉에 뿐만 아니라 다른 狀況에서도 適用되느냐에 關해서는 Elihu Katz and Paul F. Lazarsfeld, Personal Influence: the part played by people in the flow of mass communications, The Free press, Ill., 1960를 參照할 것.

傳統的社會에 있어서의 personal com.과 mass com.에 關해서는 李萬甲, 傳統的 社會에 있어서의 퍼스널 콤.과 매스 콤. 時事, 1962, pp. 2~5를 參照할 것.

그리고 韓國農村에 있어서의 communication에 關한 社會調查結果에 關해서는 李萬甲, 韓國農村의 社會構造, 韓國研究圖書館, 1960, pp. 176~181을 參照할 것.

後進國에 있어서의 communication의 階段의 起點에 關해서는 洪承勉, 後進國에 있어서 「매스·콤의 役割」思想界, 1960年 1月, p. 197을 參照할 것.

(2) 韓國의 產業別人口를 보면 第1次 產業—66.2% 第2次 產業—2% 第3次 產業—31.8%로 나타나고 있다. (經濟企劃院, 經濟統計年報, 1962 p. 127)

(3) 李萬甲教授는 韓國에서 儒教의 五倫中 意識의 으로 과시된 것은 男女關係뿐 其他는 아직 殘存하고 있다고 指摘하고 韓國人은 第二次大戰以前까지 自治意識이 缺如하여 韓國人の 歸屬意識은 強力한 集團인 家族과 그 擴大인 血族團體에 있음으로自己가 屬해 있는 community에도 無關心하다고 보고 있어서 稅金은 잘리는 돈이고 兵役은自己와 無關한 것으로 본다고 指摘하고 있다. (李萬甲, 輿論의 體質과 表皮; 歷史의 特性과 形成의 缺陷, 思想界 1962年 12月)

## 研究論文

고 이에 立脚한 諸般 政策 및 價値와 欲望을 國民全體에 鼓吹하여, 그리고 그들을 積極的으로 社會的政治活動에 參與케 하는 政府의 모一은 努力의 效果를 크게 減少시키고 있는 形便이다. 이러한 事實은 더욱이나 第二次 大戰前 까지 自治意識이 缺如하였고 民主主義的生活樣式의 訓練이 없었던 韓國人은 李萬甲 教授가 指摘하듯이 「家族 및 그의 擴大인 血族團體에 대해서 強한 歸屬感을 갖는 反面에 自己가 屬해 있는 community에 關해서는 無關心한 態度를 가진 韓國人の 近代化를 위해 실로 繁要한 問題點을 提示한다고 생각된다.

上記한 communication의 前近代性을 端的으로 表示하는 것으로서 公報部調查<sup>(4)</sup>에 나타난 바 最近 國內外의 으로 큰 topic 으로 되어 있는 韓日會談에 關해서 아는 바 없다고 答한 者의 數는 20 歲 以上의 成員의 53.8%, 政府가 數年間 絶叫하고 各種 行政組織을 通하여 P.R 해온 革新運動에 關해서 아는 바 없다고 答한 者의 數는 66.8%에 達하고 있다는 事實과 國民의 主된 關心이 物價上昇(13.0%) 食糧難(18.8%) 子女教育(14.0%) 貧困(26.6%)등과 같은 個人의 生活問題에 集中되어 그 合計가 72.4%를 의루고 있다는 點을 들수 있다. 말하자면 media 普及의 低調狀態에다 甚한 生活苦에서 오는 心理的 葛藤으로 因해 韓國人은 甚한 政治的 無關心에 빠져 있고 近代的인 觀念과 傳統的인 觀念의 交疊적 役割을 하는 이른바 opinion leader의 傳達效果도 極히 減少되는 實情의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면 韓國人의 news source로서의 media의 比重과 opinion leader의 比重이 事實上 어떤 關係에 있는가를 檢討하여 보기로 한다.

1962年 7月 現在 news source로서 新聞은 16.9% radio는 28.1% T.V.는 0.2%를 각각 利用되고 있는데 比하여 personal com.이 news source로서 30.4%라는 高率을 나타내고 있다.<sup>(5)</sup> 新聞과 radio가 news source로서는 45%의 比率 밖에 찾의 못하는 後進狀態다. 그리고 news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의 數는 23.6%라는 놀랄만한 比率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의것은 20 歲 以上의 人口의 約 2割에 해당되는 成員은 아직도 國家的 communication에서 疏外되고 傳統的 社會構造 속에 埋沒되어 있다는 事實을 만해 주고 있다.

그러나 上記한 1962年的 資料를 1961年的 資料와 比較하면 radio가 增加傾向을 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1年 8月 現在 news source로서 新聞은 19.9% radio는 16.2% 그리고 「他人으로 부터」가 46.3%를 차지하고 「世上 돌아 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20 歲 成員의 17%에 해당하고 있었다.<sup>(6)</sup> 新聞과 radio를 합한 數는 36.1%였는데 1962年에는 45%로 증가 했고 personal com.은 反對로 46.3%에서 30.4%로 減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對比하여 보면 下記와 같다.

(4) 公報部調查局, 全國國民輿論調查結果中間報告, 1964年 2月 參照,

(5) 公報部, 全國國民輿論調查結果報告書, 1962年 7月 實施 p. 23.

(6) 公報部, 第二回 國民輿論調查結果報告書, 4292年 8月 實施 pp. 23~25.

韓國의近代化와 Communication.

年度	新聞	radio	他人	모른다	其他
1961	19.9(%)	16.2	46.3	17.0	0.6
1962	16.9	28.1	30.4	23.6	0.8

이것을 地域別로 分析하여 보면 下記 表에서 볼 수 있듯이 communication의 二重構造的 現象이 더욱 현저해지고 있다. 즉 1961 年度에 있어서는 市地域에 있어서는 mass media 가 news source로서 過半數以上의 成人에 의해서 利用되고 邑과 面地域에서는 personal com. 이 過半數 以上(71.3%)<sup>(7)</sup>의 成人에 의하여 news source로서 利用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radio 普及과 有線 speaker의 普及으로 因해서 1962 年에는 邑地域까지 media가 過半數 以上인 51.6%로 증가現象을 보였으나 面地域에 있어서는 여전히 personal com. 이 62.2 %<sup>(8)</sup>로서 過半數 以上을 壓倒的으로 上回하고 있는 現象이다. 그러나 面地域에 있어서는 前 年度에 比해서 personal com. 이 71.3%에서 62.6%으로 減少 傾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1 年과 1962 年에 있어서의 news source를 地域別로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sup>(9)</sup>

	新聞	radio	他人	모르겠다	其他
<b>1961年</b>					
特別市	52.4(%)	29	17.5	1.1	—
市	25.7	16.2	39.8	17.8	0.5
邑	19.9	14.9	40.3	23.5	1.4
面	13.9	14.8	53.3	17.4	0.6
<b>1962年</b>					
特別市	39.3	34.1	16.8	8.4	0.6
市	28.2	23.8	26.2	20.7	0.9
邑	25.8	25.8	28.6	17.8	2.0
面	8.6	28.6	34.1	27.9	0.6

위에서 表示되고 있는 바와같이 韓國에 있어서 personal communication의 比重과 opinion leader의 傳達役割의 比重이 자못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韓國人은 家族集團에 強한 歸屬意識을 가지는 반면 地域社會一般에 關한 問題라든가 특히 中央에서 行하여 지는 政治, 經濟, 社會, 文化面에 關한 問題에 대해서는 큰 關心을 傾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opinion leader가 主로 血緣集團內에서 傳達役割을 遂行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韓國에 있어서의 communication의 近代化는 media의 普及과 아울러 opinion leader의 近代化를 위한 努力이 무었보다도 繫要하다고 본다.

(7) 71.3%는 他人(46.3) 모른다(17.0) 其他(0.6)을 合한 數字다.

(8) 62.6%는 他人(34.1) 모른다(27.9) 其他(0.6)을 合한 數字다.

(9) 公報部, 前揭書, 1962, p. 27 및 上揭書 4294, p. 25 參照.

## 研 究 論 文

이러한 課題는 1961 年의 軍事政權下에서 發足한 國民運動의 基本的 趣旨가 軍事革命을 國民革命으로 昇華시키기 위해 下向式 communication 을 上向式으로 轉換시키기 위해 里洞部落에 指導者를 育成하는데 있었다<sup>(10)</sup>는 點에 있어서 또한 首肯이 가고 있다.

다음 教育程度 別로 communication 的 構造를 보면 教育水準이 높을 수록 media 가 主로 news source 로 되어 있으며 또한 教育水準이 높을 수록 radio 보다 新聞이 더 利用되고 있다. 具體的인 例를 들면 中學程度의 學力以下의 경우에는 radio 가 新聞보다 過半數 以上을 차지하고 있는데 反하여 高等學校水準 以上 부터는 新聞이 radio 보다 더 많이 利用되고 大學程度에서는 거이가 新聞을 new source 로 삼고 있어 news source 로서의 radio 의 役割이 過小評價 되고 있는 現象임을 알 수 있다. 具體的인 內容은 다음과 같다.<sup>(11)</sup>

學 歷 別	新聞	radio	T.V.	他 人	其 他
無 學	0.9(%)	10.9	0.3	28.9	59
國 文 解 得	4.4	22.4	—	46.4	26.8
國 民 學 校	17.1	37.1	0.1	32.5	13.2
中 學 校	34.8	43.5	—	19.1	2.6
高 等 學 校	49.8	42.7	0.4	5.9	1.2
專門 및 大學 以上	71.5	25.2	1.7	—	1.6

끝으로 韓國에 있어서의 T.V. 를 通한 communication 는 서울特別市와 그 近郊一帶에 局限될 뿐 他地域에서는 視聽圈外임으로 問題視 될 수 없다. T.V. 調查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主로 婦女子들의 news source 로서 利用됨에 不過한 實情이다.

## 6. 結 言

韓國의 近代化와 政治 및 行政의 民主化는 이미 考察한 바와 같이 communication 面에서 볼 때 아직도相當한 距離를 남겨 놓고 있다. 말하자면 아직도 政府와 各種 集團이近代化를 위한 價值와 意欲을 發散傳達하여 近代的인 生活目標와 그 方法을 위한 規準的 態度形成을 할 수 있는 各種 media 普及의 低調로 因해서 communication 構造面에 있어서도 이를바 「二重的 構造」<sup>(12)</sup>를 露出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事實은 社會構造의 變革과 民主的인 政治態度와 合理的인 制度의 確立을 阻害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技術, 習慣 및 人間關係의 形成에 완강히 抵抗을 하고 있다. 더 나가서는 政府가 指向하는 諸般計劃 推進을 民衆의 理解하고 積極的인 協力を 提供하여 政府

(10) 東亞日報, 1964年 3月 18日, 3面.

(11) 公報部, 輿論調查, 前揭書, 1962. 7, p.28.

(12) 非西歐化 社會에서는 communication media 는 主로 都市人口에만 集中된다. L.W. Pye, op. cit., pp. 659—660. 參照

의 政策과 그 執行過程을 監視하는 民衆統制를 困難케 하는 原因도 되고 있다.

韓國에 있어서의 communication의近代化는 media의普及뿐만 아니라于先 그 阻害的要因의 發見과 除去를 위한 努力의 隨伴을 必要로 하고 있다. 그 理由는 media를 所有한다 하드라도 그것에 接近할 수 있는 時間的 및 心理的인 餘裕가 없으며는 안된다는 點과 集團成員에게 media의 内容을 傳達 解釋評價하는 opinion leader가 또한 있어서 態度變化에 繼續的인 影響을 미치는 personal communication이 있어야 한다는 點에 있다. 韓國에 있어서 communication의近代化와 輿論形成을 阻害하는 要因은 主로 經濟的 要因, 教育的 要因 및 傳統的인 儒教的 思考方式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밖에 心理的 要因으로서 權力層과 非權力層과의 距離增大와 政治指導層에 대한 不信感 및 職業的 重壓과 生活苦에서 오는 政治的 無關心을 들 수 있다. 그와 같은 心理의 端的인 表現은 最近(1964年3月)의 公報調查<sup>(13)</sup>에 나타난 바 韓日會談에 關해서 아는 바 없다고 答한 者의 數가 20歲以上의 成員의 53.8%에 达한다는 點에서 發見될 수 있다.

結論的으로 韓國의 政府機關은 물론 政黨, 職能團體 및 言論機關과 各種社會團體는 이상과 같은 諸現況에 깊은 關心을 傾注하여 media의 擴大普及 및 傳統과 慣習의 長短과 새로운 價值를 理解하고 欲求를 開發시킬 수 있는 opinion leader의 發見育成에 自覺的인 活動을 展開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理由는 media가 充分히 利用度 될 수 있다 하드라도 傳統的인 政治的 無關心과 上記한 바와 같은 經濟的 및 心理的인 葛藤에서 오는 無關心이 持續되는 限 mass com.의 政治過程에서의 이른바 「Feedback」機能<sup>(14)</sup>이 제구실을 할 수 없는 까닭이다.

(13) 公報部 調查局, 政府施策에 대한 全國 國民 輿論調查結果(中間報告), 1964年2月實施, p. 13.

(14) L.W. Pye, op. cit., p. 660.